

# EBS, Quam Libet.

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

1	누구?	106p
	“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. ...”	
2	누구?	107p
	“... 의무란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.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고 주관적으로는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, 따라서 나의 모든 경향성을 버리더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.”	
3	누구?	110p
	유용성이 도덕적 정서의 근원이다. 이 유용성은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. 이러한 점들로부터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모두 그 자체로서 곧바로 우리의 시인을 받는다는 사실이 도출된다.	
4	누구?	111p
	· 인간의 역사는 ... 이성이 점차로 자신의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과정이다. · ... 역사는 이성적 자유가 점차로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.	
5	누구?	112p
	이성적 존재자가 ... 보편적으로 법칙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법칙에 복종하기도 한다면 그는 한 구성원으로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다. 그러나 법칙을 세우기만 할 뿐 다른 이성적 존재의 어떤 의지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두머리로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다. 이성적 존재는 의지의 자유에 의해 ... 언제나 입법자로 간주되어야 한다.	
6	다음은 밀의 글이다. A은(는) 누구?	113p
	A이(가) 추구한 삶을 동물의 삶과 동일시하며 비판하는 것은 명확하게 부당하다. 왜냐하면 동물의 쾌락은 인간의 행복 개념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이다. 인간은 동물적 욕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그 능력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행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 ... A의 모든 이론은 지성의 쾌락, 상상력의 쾌락, 도덕적 감성의 쾌락을 단순한 감각의 쾌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쾌락으로 인정하고 있다.	